

프랑스 행위예술의 거장 오를랑 광주서 첫 특별전

G.MAP '오를랑 하이브리드:AI'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개막 특별전 대표작 성형수술 퍼포먼스 시리즈 여성으로서 주체적 신체 자아 인식 광주전시 미래기술 결합 주제 확장

“나이, 성별에 제 모습을 가두고 싶지 않아요. 예술을 통해 비로소 저를 둘러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프랑스 행위예술의 거장 샌트 오를랑이 광주 첫 전시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오를랑 하이브리드:Artistic Intelligence'전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일인 지난 5일 전시장에서 만난 오를랑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경호 G.MAP센터장과 과거 협업 인연으로 광주에서 첫 전시를 G.MAP에서 열게 됐다. 한국에서는 이전에 서울과 부산에서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초청받아 개인전시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특별전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G.MAP이 지난 7일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행사를 기념해 기획한 특별전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이어진다. '미'에 대한 신념에 도전하며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 행위예술을 선보였던 그녀는 이번 광주전시에서 기후위기, 생태계 공생 등에 관련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한다. 미디어아트 특화 전시장인 G.MAP에 작품이 소개된 만큼 홀로그램, 증강현실, AI 등 미래기술



오를랑 작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재활용 재료와 물건들로 만든 새로운 로봇'.

G.MAP제공

을 활용한 콘텐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를랑은 1947년 프랑스 생테티엔 출신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거장 예술가이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 속에서 주어진 이름을 거부하고 불어에서 여성형, 남성형도 아닌 오를랑(ORLAN)이라는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이름을 명명,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했다. 유전적으로 자연이 준 신체를 저항하고 변형하

는 작업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신체 예술의 장르를 개척해냈다.

특히 1990년대 3년간 뉴욕, 파리 등지에서 열린 아홉 차례에 걸친 '성형수술 퍼포먼스 시리즈'는 그녀의 대표작이다. 자신의 얼굴과 몸을 예술의 매체로 삼아 변형하고 절개했다. 국소마취를 한 작가 자신이 직접 수술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충격적이고 가학적

인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이를 통해 '미'에 대한 개념과 금기시됐던 신체의 훼손이라는 그녀의 예술적 실험은 저항하는 몸, 주체적인 신체성과 자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예술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를랑의 작업은 자신의 물리적 육체에만 한정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신체가

다시 한번 기술을 통해 재명명되는 예술적 활동을 이어 나간다. 1층 전시장에 걸린, 페트병과 플라스틱 등 재생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로봇으로 변한 오를랑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과 포옹하는 사진이 바로 그 예다. 기술 발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물들은 작가의 손길로 생기를 띤다. 피카소, 조르주 상드 등 예술가와 시대를 선도한 여성인물들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오마주 작품들도 눈에 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작품을 비추면 증강현실로 나타나 춤추는 오를랑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전 시절 프랑스에서 보급된 단말기 미니텔을 활용한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며, AI로 구현한 기술로써 한국어를 하는 오를랑 홀로그램 신작까지,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 그녀의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작품세계를 조망한다. 이번 전시는 오를랑의 작품 세계가 신체미술, 성형수술 퍼포먼스에만 한정됐던 단편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신체를 매개로 기술과 함께한 그녀의 작업 세계에 집중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

오를랑은 “내 신체는 예술의 도구로써 사용돼 여러 담론을 형성한다”며 “특히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예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미래사회의 이슈들을 생각해내고자 한다. 이번 광주전시에서 기존 '미'와 '여성' 대한 고찰부터 전지구적 문제로 당면한 생태적 메시지에까지 담아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8회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가 지난달 30일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제8회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

우리웃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 제8회 행사가 지난달 30일 남구 효천지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귀빈 및 심사위원 소개, 2부 전국 우리웃 한복 뽑내기 대회 패션쇼, 3부 시상식이 이어졌다. 대회는 △그랜드 시니어 부문 △미즈 부문 △시니어 부문으로 나뉘 진행됐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특별상 6명(베스트스타상 1명, 베스트스마일상 1명, 베스트포즈상 1명, 베스트포토제닉상 1명, 베스

트레서상 1명, 베스트매너상 1명),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시상했다.

대상 강희영, 최우수상 신은주 신지원, 우수상 한아영 여찬미 박진아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국제리더스모델협회가 주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진흥원과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어반브룩과 비담한복, 대동문화재단이 후원했다.

최동범 전국우리웃모델선발대회 이사진장은 “한복과 시니어모델이라는 화두를 품에 안고, 빛고를 광주에서 시작한 행사가 전국으로, 나아가 아시아를 관통해 세계로 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인상주의 시대, 프랑스 음악 정수 선보인다

12일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지휘 김영언·플루티스트 박예람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티움 콘서트Ⅳ 'Impressionism(인상주의)'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1일 2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네 번째 이야기 'Impressionism'은 다가오는 초가을에 인상주의 시대 감성,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선보일 공연이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와 해설을 맡고 플루티스트 박예람이 광주시향과 함께 협연한다.

이날 공연은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 '드뷔시'를 시작으로 '이베르', '포레', '라벨'의 음악을 선보인다.

공연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화려하게 시작한다. 드뷔시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곡이며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이어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을 플루티스트 박예람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후반부에는 포레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op.80 중 시칠리아 무곡'을 연주한다. 1893년에 몰리에르의 극음악 '평민 귀족'의 일부로 작곡됐다. 이후 관현악곡으로 재편곡되어 연극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끝으로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작품은 라벨의 '거울' 모음곡 중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이며, 유일하게 스페인어 제목을 가

지고 있다. '거울'의 네 번째 곡인 작품은 1918년 라벨이 관현악으로 편곡해 '스페인의 어릿광대가 흠모하는 여인의 창가에서 새벽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

이날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플루티스트 박예람은 아비뇽 오케스트라 외국인 최초 종신 수석 입단을 시작으로 생모 음악원 플루트 교수이자 벨기에 라 모네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이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 'Impressionism' 입장권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관람은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오페라단, 푸치니 '토스카' 공연 성료

세계 정상급 출연진에 관객 호응 전석 매진...양코르 무대 '첫 사례'

광주시립오페라단(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한 오페라 '토스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일 광주시립오페라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세계 정상급 출연진과 탄탄한 프로덕션이 만나 높은 수준의 공연을 시민

에게 제공했다.

특히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무대에 객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으며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마르첼로 모타렐리의 탁월한 해석과 무엇보다도 연출가 김지영의 혁신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김지영 연출은 배우들의 감정선에 따라 비장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법으로 날카로운 연관을 표현했으며, 이는 무대 위에 수놓은 음악과 잘 조화를 이루며 이번 '토스카' 공연의 백미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진가를 볼 수 있었으며, 카바라도시 역의 테너 윤병길은 이날 '별은 빛나건만' 양코르 무대를 갖는 등 광주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토스카'의 성공적 공연과 더불어 오는 10월 25~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1월 1~2일 '달빛동맹' 일환으로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